호남신문의 새 로고는
타원형의 우주안에 '태풍의 눈'을 형상화해
무한한 역동성과 함께 정의로운 언론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1946년 10월 26일 창간 i-honam.com 제 3048호 (음력 11월 2일)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꼬여가는 광주 공항 이전' 4자 협의체 무기한 연기

광주시, 여론조사 내세워 민간공항 이전 유보 결정
전남도 "광주시 전향적 태도, 변화 없으면 불참할 터"
국방부·국토부도 민간공항-협의체 결부 부정적 기류
광주시 "전남도 빠지면 4자 협의 난망, 정상화 기대"

광주공항에 착륙한 전투기.

광주시의 민간공항 이전 유보 결정으로 군(軍) 공항 이전 논의까지 실타래가 꼬이는 상황이 현실화됐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 관련 부처까지 포함한 4자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가운데 광주시가 당초 2021년까지 조건없이 진행키로 한 민간공항 이전을 유보한 채 4자 협의체로 (이전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넘긴데 대해 전남도가 불쾌감을 드러내며 4자 협의체 탈퇴 움직임을 보이면서 광주·전남 상생에도 파열음이 일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당초 오는 18일 개최하기로 했던 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 간 4자 실무협의체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4자 실무협의체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주민수용성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조건없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겠다던 2년 전 약속을 깨고, 시민 여론을 이유로 민간공항 이전을 유보한 채 4자 협의체에 공을 떠넘기자 전남도는 "(광주시가) 약속을 깼다"고 반발하며 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와 국토부 역시 '군공항 이전을 위한 4자 실무협의체에 민간공항 이전을 결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4자 실무협의체는 지난달 13일 광주에서 첫 회의를 가졌으며, 오는 18일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다.

전남도는 광주시에 민간공항 이전 유보 방침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당초 약속 이행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전남지역 경제단체와 체육단체, 문화단체 등도 잇따라 민간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광주시가 시·도 상생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행정통합 마중물 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광주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군공항 이전을 위한 4자 협의체 운영은 어렵다"며 "시·도 신뢰 회복을 위해 민간공항을 당초 약속대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광휘 기획조정실장은 "실무적으로 당초 18일에 4자 협의 테이블을 마련키로 한 것은 사실"이라며 "전남도가 빠질 경우 전국 최초의 4자 논의 테이블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4자 협의체에서 군공항 논의가 이뤄지고 해결책은 찾는다면 다른 문제들도 모두 풀릴 것"이라며 "4자 협의체가 잘 지켜져 (군공항 이전)의 불씨를 살릴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환 기자

광주시, 요양시설 중심 코로나19 검사 위해 '신속항원·타액PCR 방식' 도입

코로나19 진단검사법 비교

	기존 PCR 검사 (유전자증폭검사)	신속진단키트 검사 (항원검사)
검체	콧구멍 또는 목구멍에서 채취한 분비물	
시간	3~6시간	15~30분
비용	약 8만 원	약 2만 원
정확도	소량의 바이러스만 있어도 진단 가능	바이러스 양 적으면 무증상 환자 진단율 낮음
검사자	현재는 의료인 또는 검사 전문가만 가능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속항원검사, 시간단축 장점·정확도 단점…검사비 2만원 정도
타액PCR, 의료진 없이 검체 채취…결과 도출까지 하루정도 소요

광주시가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타액유전자증폭(PCR)' 방식을 도입한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15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신속항원검사와 '타액PCR 검사'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에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두 가지 방식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요양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종사자와 환자에 대한 긴급 검사를 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 요양시설과 집단시설 등의 종사자와 환자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해 두가지 방식 사용 신청을 했다.

'신속항원검사' 방식은 코와 목에서 검체를 채취해 1시간 내로 결과가 도출돼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의사 등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또 바이러스 양이 적으면 무증상 환자의 진단율과 정확도가 기존의 PCR 검사방식보다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비용은 기존 PCR 검사가 8만원 정도이지만 신속항원검사는 2만원 정도이다.

타액PCR 검사는 침 등을 이용한 검사 방식으로 전문 의료진 없이 검체를 채취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검사결과 도출까지 하루정도 소요된다.

광주시 방역당국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와 타액PCR검사는 기존 검사방식의 보조형태로 사용하기 위해 정부에 신청을 했다"며 "승인 되면 요양시설 등 집단수용시설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여수 향일암·순천만습지 새해 일출제 '전면 취소'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관광객 차단

여수시 향일암과 순천만습지에서 해마다 열렸던 새해 일출제 행사가 올해는 열리지 않는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국 4대 관음 기도처이자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여수 향일암에서의 2021년 1월 1일 새해 첫 일출제 행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소됐다.

해마다 향일암 일출제는 31일부터 새해 1월1일까지 여수 돌산읍 임포마을 일원에서 해넘이, 해돋이 행사와 함께 소원성취 기원 퍼레이드,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향일암 종각 기념 타종, 가요제, 버스킹, 사물놀이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일출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4만여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여수시는 사전에 2300여 대 주차가 가능한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고 행사장까지 10여 대의 셔틀버스 배치 등 교통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했다. 행사 기간 시내버스 운임도 무료로 전환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했다.

하지만 올해는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따라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행사장까지 진입 차단도 고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향일암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오동도, 자산공원, 소호요트장, 돌산공원, 종고산, 구봉산, 무선산 등 읍면동 23개소에서 분산 일출제도 하지 않는다.

순천시도 새해 첫날 순천만국가정원 하늘정원에서 개최하던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다.

지난해 새해를 맞이하는 신명 나는 공연과 일출을 보러온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떡국을 나눠 주면서 새해의 기운을 정원박람회장에서 북돋웠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따라 모두 취소됐다.

또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전남 순천만 옆 순천컨트리클럽(대표이사 임종욱·순천CC)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1년 새해 해돋이 행사도 취소됐다.

순천CC는 2016년부터 해마다 1월 1일 오전 6시 골프장을 일반인에 개방해 순천만 바다 위를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해돋이명소 골프장으로 알려졌지만, 올해 해돋이 행사는 열릴 수 없게 됐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